



# 문화수도 첫 인상 망치는 '아파트 장벽'

## 광주에 들어서면 숨이 '턱' 막힌다

광주의 관문인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앞 아파트단지. 축벽 간격이 좁고, 각 동이 교차 배치되는데다, 판상형 구조를 띠고 있어 조망을 가로막고 도시미관에도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종합버스터미널 등 '관문'에 자리

문화도시이자 디자인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관문이 아파트로 가려지고 있다. 버스이용객들이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을 나서면 옛 송원학원 부지에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단지(13~15층)가, 승용차로 서광주출근길을 통과해 광주에 들어서면 운암동 일대 재건축아파트단지(16~26층)가 시야를 가로막는다. 광주로 들어서는 관문에 자리

특히 아파트 중간 축벽 간격을 광주시가 권고하는 6m(건축법상 4m)보다 적은 4.88m로 계획하고 앞 동과 뒷 동을 교차로 배치하면서, 터미널에서 어등산 쪽으로의 조망은 완전히 가로막혔다. 전문가들은 이 아파트 단지의 축벽 간격이 좁아 사실상 '방풍'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기아로는 80m 도로로 그 자체가 하나의 조망축이 되고, 광천버스터미널은 교통의 거점이지만 주변 건축물과 녹지 구성 등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업체측은 수익성을 따지고, 입주주민들은 남향의 아파트만을 선호하다보니 직사각형 모양인 관상형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밖에 없었



또다른 광주의 관문 북구 운암동 서광주출근거리 진입로 부근 재건축아파트단지. 광주에 들어서자마자 16~26층의 고층 공동주택 단지가 자리하고 있어 '답답한' 인상을 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도시계획·건축심의 규제 비켜가

'종(種) 상향'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 성격의 '공동주택 관련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 것도 이 아파트는 적용되지 못했다. 또 지난해부터 시가 운영중인 공공디자인위원회도 민간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심의대상에 상정조차 하지 못해 사실상 이 아파트는 아무런 규제나 제재 없이 광주의 관문에 들



### 가짜 성능 강화제 팔다 멀미

전남지방경찰청은 27일 영터리 건강보조식품을 성 기능 강화제로 속여 판 A(45)씨 등 3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검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2007년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오피스타일에 회사를 차려놓고 영터리 건강식품 3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 동사무소 또 털렸다

광주 북구 중흥 3동 4월에 만 여섯번째

새로 설치한 최신 방범장치와 경찰의 비상경계망을 뚫고 광주에서 또다시 동(洞) 주민센터 절도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막판인 모습이다. 지난 8일 이후 여섯 번째다. 27일 오전 7시5분 광주시 북구 중흥3동 주민센터에 누군가 침입, 서랍을 뒤진 뒤 경비음이 울리자 달아났다. 지난 13일과 14일 밤 사이 동구 계림 1·2동과 북구 두암 3동 주민센터가 털린 지 13일 만이다. 당시 경찰은 동 주민센터 곳곳에 형사들과 전·의경을 배치했다. 범인이 3일 간격으로 범행에 나선 점을 감안, 여섯 번째 범행이 17~18일 사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추론한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여 넘도록 범인은 나

타지 않았다. 잠시 주춤할 것으로 믿고 잠복근무를 해제한 경찰의 판단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범인이 잠복근무 중인 때를 피해, 그것도 취약시간대(새벽 1시~5시)가 아닌 이른 아침인 오전 7시5분께 유유히 다시 나타날 줄은 몰랐다. 또 범행현장에 가위와 공구 등 증거품을 남겨두는 배짱(?)을 보였다. 경찰은 증거품과 지문채취, 족적 등을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약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지만 범인의 범행 목적을 뚜렷이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은 범인을 매마른 체형을 가진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갈수록 범행수위가 대당해지고 범행시간이 짧아져 추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구도 이날부터 동장 책임 하에 당직근무를 서기로 하는 등 자구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희기자 glee@kwangju.co.kr

# '오락실 뇌물' 경찰관 빵소니 사건 조작도

## 집유 풀려났다 구속

사행성 오락실 업자에게 '뒷돈'을 받아 구속됐던 경찰관이 음주빵소니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또다시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진)는 27일 빵소니 피의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건 접수를 미루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특수직무유기)로 전직 경찰관 변모(38)씨를 구속했다. 변씨는 광주 북부경찰서에 재직 중이던 2007년 1월 16일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대인교통사고를 일으킨 고모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

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당시 고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고 사고 발생 7개월이 지난 뒤에야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는 등 사건을 고의로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변씨가 사건을 감추기 위해 경찰의 범죄관리시스템을 조작하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지도 않은 채 1년5개월동안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변씨는 오락실 업주로부터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으며, 최근 파면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편의점 여종업원 상습 성추행 20대 검거

상습적으로 편의점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20대가 위장 근무중이던 여경에 달미가 잡혔다. 화순경찰은 27일 편의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하려 한 최모(25)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불검아 조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18일 새벽 3시30분경 화순군 모 편의점 인근 화장실에서 Y(여·28)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모두 4명을 성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사건을 감추기 위해 경찰의 범죄관리시스템을 조작하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지도 않은 채 1년5개월동안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변씨는 오락실 업주로부터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으며, 최근 파면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장례식장·아파트에 침입

#### 망자 금품 등 26차례 절도

광주광안경찰은 27일 가스관을 타고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정모(31)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K아파트 2층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새벽 시간에 여종업원이 화장실에 가면 뒤를 밟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성범죄 수사를 다룬 미국 드라마를 보고 따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비슷한 시간대에 이 편의점 여직원들이 연속 범행대상이 된 점을 주목하고 여경을 종업원으로 위장시킨 뒤 3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는 방법으로 용의자를 유인했다. /최수=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 이천 조폭 빚독촉 목포 왔다 '쇠고랑'

이천 조폭 빚독촉 목포 왔다 '쇠고랑' ○경기도 이천에서 목포까지 내려와 일경 체권주심에 나선 '집요한' 20대 조폭이 시민의 신고로 쇠고랑. ○목포경찰청 27일 빌려준 돈보다 턱없이 높은 금액의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한 뒤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를 감금·폭행한 김모(28·경기도 이천)씨를 폭력행위 등 혐의로 입건. ○김씨는 속칭 '이천연합파'의 조직원으로, 지난해 8월경 경기도 이천시 J유휴주점에서 600만원을 빌려간 종업원 김모(24)씨에게 650만원짜리 차용증을 쓰게한 뒤 돈을 갓지 않아 서울의 한 모텔에서 감금·폭행한 혐의. ○김씨는 피해자 김씨가 목포에서 사실을 알고 이날 목포에서 김씨를 찾아내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려 했으나 한 시민의 신고로 달미.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부동산 판매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매매중개건리스/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매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이젠 전기요금 걱정 끝!! <그린100만호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정부무상보조사업(100가구 선착순)> 상업용 발전소 용도인 고효율 단결정 모듈 설치 - 3kWp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평균 월당 약3~400kWh(추정)의 전력이 생산가능 태양광발전 설치시 예상되는 월 전기요금 비교표(추정) 10만원(약 460kWh) 일때 약 4,200원 월 95,800 원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설치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 전력 생산량과 설치시 청구 요금, 절감 요금은 추정치로서 일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요" 설치자의 자격요건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택용' 이고, 한전과의 계약 종별이 '주택용' 인 건물의 소유자 ○ 신청자 구비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한전전기요금 1년사용내역 - 표준계약서(인감서1도장날인) 태양광주택 설치시 무상보조금 및 자부담 ○ 총사업비 중 - 국가 무상 보조 60%, 자부담 40% ○ 주의사항 - 반드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09년도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전문기업과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일괄시공(상업용 발전사업 절호의 찬스!!) 영업딜러 모집 2008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우수전문기업 승지전력(주) 광주사무소 062)605-9796 영주사무소 010-9605-0091